당신의 수행력(법력)은?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어느 대강백께서 저잣거리에는 말 잘하는 (입터진)도사(도인)들이 너무 많고 성인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닦고 닦아 증득한 것을 보여주는 참 수행자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에 경과 어록에서 말 잘하는 앵무새, 여우, 도깨비가 될까 봐 성인과 조사들이 걱정하는 장면이 생각난다.

지금 여우의 간교에 홀리고 도깨비에 속고, 앵무새의 말잔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전국 산과 들로 바다로 심지어 해외로 헤매고 다니는 이들이 차고 넘친다. 누가 저들을 내몰고 있는가?

또,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스님, 우리스님뿐이고 우리 스님은 척보면 알고 우리 절이 영험하다는 둥, 무슨 기도를 하면 꼭 들어준다는 등등….

이런 내용이 어느 경, 어느 조사어록에 있는 말인가? 또, 바른 정법만을 포교한다는 방송도 사찰 선전하는 것 보면 기가 막힌다. 방송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안다. 불교와 비불교적인 것을 걸러서 방송해주면 좋으련만…

분명한 것은 주인공인 여러분 스스로 바르게 공부하고 바른 실천하면 우리스님이 아니고 내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궁극에는 부처님처럼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 때 얻은 것(증득)을 병든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정신을 바로 잡아 주어서 바른 정법을 알리는데 부처님 제자로써 한 평생을 일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를 만나면 어떡하고 있는지… 성직자의 신분이라면 여기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이다.

어느 방송스타 00들처럼 정신병원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법력이 부족해서 외면할수 밖에 없다든지…

• • •

〈사례 ❶〉 췌장암에서 전이된 암

몇 해 전 년 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기독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방영중인 인간극장을 꼭 보셔야 한다고… 왜냐고 하니 무조건 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시간에 인간극장을 틀어보니 시작과 동시에 40대로 보이는 여인이 온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치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 화면을 살펴보았으나 00군 외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자,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하고 바로 여기 스님들과 같이 기도 준비해서 전남 00군청 사회복지과에 가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인간극장 주인공을 찾고자 한다고 하자 좀 의아한 눈치 길래 얼른 신문 몇 장을 내밀었다.

사실은 현대 불교 신문이 아닌 일반 신문에 칼럼으로써 글을 쓴 것을 명함대신 내밀었다. 그러자 그 분 신상은 곤란하고 ○○마을회관으로 가서 이장님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하루 전 날부터 눈이 많이 왔는데 눈길을 달려 곧장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TV 인간극장 얘기를 하니 마을 분들이 다들 알고 있었고, 찾는 이유를 말씀드리니 여기 건너 방에 그 부모가 와 계시다는 것이다. 부모를 만나 신문 몇 장을 건네며 소개를 올리고는 찾아 온 이유를 말씀드리니 당혹해 하는 것이다. 그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소납은 ○○학부시절 ○○목사로부터 비교 종교학을 몇 학기 공부한 적이 있어 이럴 때는 그들에게 나의 성격지식이 필요했다. 그러자 딸이 지금 이곳을 떠나 1시간 거리의 깊은 산중으로 갔다고 한다. 이유는 신부, 목사들이 수도 없이 찾아왔는데 스님을 처음이라고 하면서 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근데 전국에 환우가 있는 곳에 가보면 항상 신부, 목사들은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만 열면 대자비를 운운하면서 가는 곳마다 스님은 처음이라 한다. 부친 되시는 분이 딸을 설득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종교적인 문제로 완고하다. 그래도 부모는 딸을 살리고 싶어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한 번만, 한 번만 이 스님을 만나 보라고 하자 그때서야 겨우 허락을 받아 그 부모와 함께 그가 요양 중인 산중에 갈 수 있었다. 스님이 부모와 같이 도착하자 통증을 억지로 참고 앉아 있는 모습이 부담스러웠다. 자매님 누워도 괜찮으니 누우라 하고는 얘기를 했다. 얘기 도중에도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쳐 된다 그 모습을 보다 더 이상 볼 수 없어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고 하니 그의 부모께서 좋다는 것이다. 기도는 각각의 방식대로 기도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고는 한 손은 이마에, 한 손은 배에 가볍게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순간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평안해졌고 간간히 코고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부모님 보고 조용히 자게 놔둬라 하며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딸은 큰 도시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 였고 배가 가끔씩 아파 검사를 하니 췌장암이 간 등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라 병원을 그만두고 산중에 가서 추나요법, 선식, 명상, 식이요법 등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 6개월 입산 후 검사를 해 본 결과 의사가 상태가 좋지 않아 그 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골 부모님 곁으로 왔다고 한다. 얘기가 끝날 즈음 환자가 미소 지으며 일어나 앉길래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사진 한번 찍자고 하며 그 가족과 같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은 지금도 가끔 꺼내본다. 도저히 환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늘 이 기도로 3일 정도는 통증이 없을테니 하루나 이틀정도 쉬었다가 연등사에 와서 3일만 아침기도 받고 가라했다. 그러자 모레가 크리스마스 전야인데 본인이 그날 교회 행사에 주인공인데 빠지면 안된다 하길래… 잘 생각해 보라하며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등사 인근에 사는 친우가 와서 스님을 찾길래 어쩐 일로 왔느냐고 하니 인간극장 주인공의 고교동창이란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를 않고 스님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래서 인연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 놓아 주어야지… 나무관세음보살

• • •

〈사례 ❷〉 뇌경색

안거 중에 신도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다. 스님 지방 소도시 ○○에 있는 ○○보살의 처사님이 뇌경색이 와서 지금 대형병원인 ○○병원에 있는데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처음 집에서 쓰러져서 지역에 있는 큰병원에서 응급 처치 후 호스를 삽입하고 2~3일을 두고 보자고 했으나 전혀 회복이 되지 않자 그 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옮겼다는 것이다. 그런 후 신도님께 연락해서 스님께 기도 부탁 좀 해 달라고 해서 전화한 것이다. 바로 여기 스님들과 같이 기도 준비를 해서 신도님들과 같이 병원으로 가니 2인 1실에 있었고 호스란 호스를 다 꼽고 있었고 일체의 의사표시는 못하고 겨우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대화는 하되 대답은 눈 깜빡임으로 하라 했고 기도 받겠느냐고 하니 눈을 깜빡인다.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바로 기도에 들어갔고 기도 후 퇴원하면 처사님이 바로 연등사로 와서 3일간 기도를 더 받으라고 하며 병원문을 나섰다.(그때는 안거중이었음) 그리고 이틀 후 의사가 와서 이 병원 창건이후 이런 기적은 처음이라 하면서 바로 퇴원을 해도 좋다고 했다면서. 웃으면서 이야기 하길래 방심하지 말라고 하며 술, 담배, 기름진 음식을 꼭 끊고 바르게 참회하며 살 것을 다시 한 번 일러주고 3일간 새벽에 신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해 주었고 몇 해 세월이 흘렀으나 정상인으로 잘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몇 해 전 3사 대형 방송사중 ○○방송이 연등사를 촬영한 적이 있다. 그때 프로듀서, PD, 작가 등이 와서 신도님 개인 인터뷰와 스님들 수행하는 일상 등등을 촬영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저녁나절 여기 일부 신도님 부부와 스님과 같이 공양을 할 때 당시 책임자였던 프로듀서분이 한마디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기 스님과 같은 분이 한분만 더 있어도…' 하였으나 그 뒷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 신도님들은 다 들었다

저들과 지식인들은 알고 있다. 바르지 않은 것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주, 부적, 삼재, 방생, 우담바라, 스님 생일, 고급 가사장삼, 술, 담배, 수능합격기도, 재수기도, 운기도, 큰 등, 작은 등, 인등, 신비를 조작한 바위, ○○을 빙자한 천도재 등등… 이렇게 잡귀만 해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을….

문제는 이런 사행 행위를 하면서도 이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경쟁적으로 당연시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제발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정법대로 해도 불보살이 밥은 굶기지 않는다. 그러면 됐지…

세존식시 착의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世尊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 乞食…

세존께서는 80 노구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탁발로 얻어 드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공양주를 두고 끼니때마다 상을 받는 상전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 번 2019.8.28 현대불교 신문 말미의 내용을 방송매체에 제안합니다.

이 법공양을 알리는데 제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종단의 소의 경전이기도 한 금강경의 주 내용과 달마스님의 말씀은 매 때마다(아침, 낮, 저녁)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금, 은, 보화, 재물, 돈)을 갠지스 강의 모래수 만큼 보시하고 어머어마한 절을 지어 시주한 들 그 공덕과 복덕은 오늘 여기 부처님 말씀(겸) 바르게 전하는 한마디에 비교한다면 백천만억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하셨다. 하여 이 제정적인 문제를 신문사와 직접 협의 후 해결해 주신다면 소납은 계속 바른 정법을 통한 체험, 득한 사례를 계속 연재해 나가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즉문즉설 안내

내 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일 시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

장 소
연등사 대웅전

참가자격
누구나

기타사항
- 당일 개인면담은 안 되고, 참가자에 한해 일정통보
- 앞으로는 재정이 해결되면 스님들 조현병 및 각종 암 치유 사례를 쓰고자 함

일부 신도님 연락처
- 010-4807-6932 [박○○]
- 010-9707-4808 [박○○]
- 010-8291-9423 [변○○]
- 010-5699-3173 [박○○]

